광주창조혁신센터, 창업 육성 '팁스 운영사' 선정

6년간 540억원 투입 창업기업 발굴지원·기술개발·해외마케팅
호남권역 최초…침체한 지역 창업기업 투자 생태계 활력 기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호남권역 최초로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돼 침체한 지역 기업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에선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팁스(TIPS) 운영사 지정 공모사업에서 540억원 규모의 팁스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팁스 운영사업(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은 2013년 시작됐으며, 운영사가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고 지역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주 목적이다.

올 4월 기준으로 전국 팁스 운영사는 총 65개사이며, 이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은 호남권역 최초라는 점에서 지역 내 창업기업 투자 생태계 활력 증진 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협력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광기술원(KOPTI), 엔슬파트너스, 인라이트벤처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기관과 해외기업 등이 참여해 기술력, 투자 등을 전방위에서 지원한다.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성장을 위한 전주기적 빠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전문성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6년간 540억원(국비 420억원, 민간투자 120억원)을 투입해 매년 최대 10개 사의 창업기업을 추천하고, 정부 R&D·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히 6월부터 1억원 내외에서 선투자한 유망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중기부는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기술개발(R&D)자금 5억원 ▲사업화 자금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1억원 ▲엔젤매칭펀드 2억원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한다.

손항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팁스 운영사 선정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호남권 유일의 팁스 운영사로서 선순환이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자문협의회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조치 해제,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로 하반기 또다시 코로나 19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남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및 자문을 얻기 위해 협의회도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남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주재 하에 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남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보고 안건으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환자별 병상관리 및 중증 환자 효율적인 병상배정 방안, 재유행 대비 먹는치료제 공급체계 인프라 사전 확보,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현장 대응인력 역량강화 방안 등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빈틈없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이어 그간의 코로나 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8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의료대응 역량도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공항 국제선 재개 대비 싱가포르 여행사 초청 팸투어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싱가포르 현지 주요 여행사, 미디어를 초청, 오는 25일까지 1주일여간 광주·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펼친다.

이번 팸투어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홍타이 트레블(Hong Thai Travel), 씨티씨 트레블(CTC Travel) 등 여행사 11개사와 유 위클리(U-Weekly) 등 미디어 7개사 총 2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4일까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신안 퍼플섬과 안심관광지인 목포의 해상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여수 밤바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전남의 구석구석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강진의 푸소(FUSO, Feeling Up Stress Off) 농촌체험과 해남 대흥사 등 지역 소도시에서 지역문화를 체험하면서 가장 한국다운 여행을 즐기고, 싱가포르-무안 간 전세기 운영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지역의 관광업계 간 교류 자리도 마련했다. 22일 여수 수호텔에서 '여행업계 교류회'를 열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 관광을 홍보하는 프레젠테이션도 개최한다.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청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광주·전남의 인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싱가포르 초청 팸투어를 기획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싱가포르 16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관광 설명회와 전남 문화체험을 추진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그동안 전남도는 국제관광 재개를 대비해 유엔세계관광기구,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했다"며 "싱가포르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레드페스타'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5·18 레드페스타'에서 한 학생이 옛 전남도청 건물 모형을 조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거복지 통합정보, 한곳에서 만나세요

광주시, '광주주거복지포털' 오픈 주택개량 사업 등 다양 정보 제공

광주시는 "주거복지 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광주주거복지포털(https://광주주거복지포털.kr)'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주거복지포털은 광주시가 지난 6월 개소한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정부와 광주시, 자치구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혜택 및 주택관련 금융지원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서비스는 ▲주거복지안내 ▲청년·신혼부부 지원 ▲주거비 및 금융지원 ▲자가진단 ▲공공임대주택찾기 ▲커뮤니티 등이다.

특히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은 본인의 소득·자산 등을 조회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안내는 물론 로드뷰(Road view) 기능을 통한 해당 주택의 현장 위치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임대 현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및 금융지원서비스, 자치구별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도시공사와 LH에서 분양·임대하는 광주지역 공공주택 공고문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또 광주주거복지포털을 반응형 웹으로 구현해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도 연계돼 관심 있는 주거정책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50명을 추첨해 경품도 제공한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교육생 모집

광주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의 2022년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예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해 12월 '한예종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광주캠퍼스 개원을 준비해 왔다.

이달 초 교육부가 광주캠퍼스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2023년 정식 개원에 앞서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광주캠퍼스는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증축·리모델링해 활용하며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예술영재교육 시범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예술고등학교(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72(매곡동))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분야별로는 음악 31명, 무용(발레) 15명, 전통예술 19명, 융합 10명 등이다.

교육생은 초·중·고교생 7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30% 내외로 뽑는다. 지원자격은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가운데 세부 전공별로 정해진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자다. 모집기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6월 7~9일, 일반전형은 6월 20~23일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